권능의 위로자를 대망하라

(이사야 40:1-11)

다락방모임 리더해설 25-31

2025년 12월 7일 주간

1.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전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2절)

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1) **하나님은 심판에서 위로로 방향을 바꾸십니다(1절).**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 아니다(로암미)'라고 선언하셨지만, 이제 다시 그들을 '내 백성(암미)'이라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겠다는 신적 의지의 선언입니다.

(2) **예루살렘의 심장을 향해 죄 사함과 징계의 종료가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심장을 향하여)"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노역"은 죄의 대가로 당한 고통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넘치도록 치렀으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의 시대를 끝내신다는 선언입니다.

(3) **이 위로는 잠깐의 기분 전환이 아니라, 인생을 뒤집는 복음의 소식입니다.** 긴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거나, 빚더미에 앉았던 사람이 '빚이 탕감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내 백성"이라 불러 주신다는 사실 자체가 참된 위로의 근원입니다.

나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습니까? 그때 경험한 위로와 평안을 함께 나눠 봅시다.**

2. 하나님께서 광야에 전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3-5절)

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1) **하나님이 광야로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백성은 광야를 지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서 광야 쪽으로 떠나갔습니다(겔 11장). 이제 하나님이 포로된 백성을 데리고 시온으로 돌아오실 길도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광야에 전령을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은 외형적인 길만이 아니라 포로된 백성들의 마음이 평탄해지도록 회개로 준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2) **그래서 광야는 심판의 자리인 동시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이자,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동시에 광야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5절)'임을 보여 줍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실패, 막막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길이 열리고, 그곳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눔 **요즘 내 삶에서 '광야'처럼 느껴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을지 서로 나눠 봅시다.**

3.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전령을 보내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6-8절)

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1) **겉보기엔 화려한 바벨론의 영광도 풀과 꽃처럼 잠시뿐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전령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던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들의 풀과 꽃이 금세 시들 듯이, 바벨론의 찬란한 영광은 곧 쇠락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다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며, 따라서 결코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2)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는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아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8절). 인생도, 나라들도, 경제도, 건강도, 감정도 모두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설 때에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눔 **요즘 내가 의지하는 '바벨론'이 있습니까? (경제, 건강, 자녀, 사람의 인정, 취미 등)**
그것들은 풀과 꽃처럼 사라질 것임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결단해 봅시다.

4.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위로자이십니까?(10-11절)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 **그는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권능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며, 열방을 향해 "보응"하실 것입니다(10절).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도, 하나님의 강한 팔 앞에서는 풀과 꽃처럼 시들 뿐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짓누르던 권세를 꺾고 역사를 뒤집으시는 권능의 위로자께서 오신다는 엄청난 희망의 소식입니다.

(2) **동시에, 그는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따뜻한 목자'이십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얼굴로 소개됩니다. 권능의 왕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양들을 친히 품에 안으시고, 갓난 새끼를 돌보는 어미 양을 배려하며 천천히 걸음을 맞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냉정한 왕이 아니라, 눈물과 상처를 아시는 다정한 위로자이십니다.

(3) **이 두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사회에 만연했던 불의를 꺾으신 동시에 문둥병자, 소경, 죄인, 세리,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친히 품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삶의 억울함과 상처를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권능의 위로자로, 동시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안아 주시는 목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눔 **요즘 내 삶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강한 왕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더 필요한지, 지친 나를 품에 안아 주시는 목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더 필요한지, 최근의 상황과 함께 나눠 봅시다.**